지구촌교회 대학지구

# 새내기 대학지구 정착기 소감문

| 성명 | 신예준 | 캠퍼스 | 수지 2캠퍼스 |
|---|---|---|---|
| 소속 목장 | 아라랏 목장 | 담당교역자 | 김은영 전도사 |

<낯선 시작, 따뜻한 공동체>

저는 부모님께서 원래 교회를 다니셨기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일상이었고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어쩌다 한 주 못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제 마음가짐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갔다기보다는 그저 매주 가는 곳이기에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대학생이 된 저는 부모님과 함께 대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교회 1층 로비에서 대학지구 목자님들이 대학지구 피켓을 들고 홍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대학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말로만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제 마음 속에서도 깊이 새기고 싶었고, 저의 믿음을 더욱 키워 나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낯선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걱정도 있었지만, 너무나 반갑고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셔서 감동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기억 덕분에 저 역시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대학지구 식구분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저는 다른 07또래와는 다른 길로 조금 늦게 대학지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처음 저를 담당해주시는 목자님께 문자가 온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지만, 목자님께서는 친절하게 자신을 소개해주시고 목장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자세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첫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저는 낯설게만 이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 앞으로 함께할 신앙 활동이 기대가 더 되었습니다.

이후 처음 대학지구에 가는 날이 다가오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배정받은 2캠퍼스의 아라랏 목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로만 대화를 나누었던 목자님을 실제로 처음 뵙고, 목장 식구들과도 처음 인사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긴장감 속에서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을 만났을 때, 저는 대학지구에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장 식구분들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색하셨을 수도 있지만, 모두 친절하고 상냥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신앙심에 대한 이야기까지 즐겁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첫 목장 모임 시간이 지나고, 저는 매주 일요일 교회가는 시간이 더 기대가 되고 설레임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지구에 매주 나가고 점점 대학지구의 환경이 익숙해지면서 저에게 아라랏 목장이란 존재가 가족처럼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매주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일상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눈 말씀과 예배가 제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었고 이렇게 저에게 좋은 영향만을 준 목장 활동 덕분에 제가 대학지구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라랏 목장을 제외한 모든 대학지구 분들과 전도사님께서도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고, 저를 볼 때마다 밝게 웃어주시고 말 걸어주셔서 저도 꾸밈 없는 제 진실된 모습으로 대학지구에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지구에 잘 적응했다고 느낄 무렵, 저는 2026년도 여름 국내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국내선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활동이었기에 낯선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내선교에 가서 어린이팀으로 섬기고, 교회 식구분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믿음의 감동이 제 가슴에 너무나 크고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게 드린 예배가 처음이었기에 저 스스로도 그 경험이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국내선교에서 대학지구 식구분들의 간증을 듣고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선교를 갔다온 이후에는 지구촌교회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제자훈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식구분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나누고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훈련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우고, 훈련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직 제 믿음이 완전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학지구에서의 신앙 생활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단단해졌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고민이 있거나 힘든일을 겪을 때면 저 혼자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고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다면 이제는 저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께 우선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기만 했던 대학지구가 이제는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공동체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저 역시 새롭게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